

수출기업 2015년 1분기 업황 평가 및 2분기 실적 전망

I. 수출기업 업황 평가	1
II. 수출기업 실적 전망	9
III. 수출기업 애로사항	14

확인 : 팀 장 이재우 (3779-6685)
jaewoolee@koreaexim.go.kr

작성 : 조사역 민동희 (6255-5754)
mindonghee@koreaexim.go.kr

I. 수출기업 업황 평가

1. 수출업황 평가지수

□ 1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수출물량 및 채산성이 모두 악화되면서 전분기(95)보다 하락한 90을 기록, 2013년 1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1분기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생산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원화기준)가 급격하게 하락하여 전기(98)보다 악화된 90을 기록

- 수출단가(원화기준) 평가지수(98 → 91)는 원자재 가격 하락, 수출경기악화에 따른 단가하락 압력 증가로 원화약세에도 불구하고 하락함

※ 원/달러환율 추이(기간평균) :

1,040('14.2/4) → 1,027(3/4) → 1,087(4/4) → 1,100('15.1/4)

※ 수출물가지수(원화기준) 추이 :

87.24('14.2/4) → 87.01(3/4) → 87.47(4/4) → 83.23('15.1~2월)

- 생산원가 평가지수(102 → 99)는 최근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원화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하락폭이 제한됨

※ 유가(WTI, \$/bl) 추이(기간평균) :

103.0('14.2/4) → 97.5(3/4) → 73.5(4/4) → 48.6('15.1/4)

○ 1분기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전기(97)보다 하락한 90을 기록, 1분기 중 수출기업의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수출계약 평가지수도 전기(96)보다 악화된 89를 기록하여 수출업체들의 계약 성사 건 수가 전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출실적 부진 지속이 우려됨

○ 자금사정 평가지수(98 → 93)도 5포인트 하락하여 수출기업의 자금사정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자금사정 평가지수는 4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하는 양상을 보여 수출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장기화가 우려됨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수출업황 평가지수	87	89	99	95	94	96	94	94	95	90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86	86	98	94	93	96	88	90	98	90
수출단가 평가지수	85	94	97	94	93	97	85	90	98	91
생산원가 평가지수	100	106	104	102	102	107	102	101	102	99
수출물량 평가지수	93	91	105	100	102	95	104	98	97	90
수출계약 평가지수	94	91	105	101	102	96	103	97	96	89
자금사정 평가지수	98	98	102	100	99	100	97	93	98	93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업황 평가지수가 전기대비 하락하였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업황 평가는 90 이하로 하락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대기업(100 → 95)보다 중소기업(97 → 88)의 하락폭이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단가인하 압력이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됨

○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대기업(93)과 중소기업(88) 모두 전기보다 하락하였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90 이하를 기록하여 수출물량 부진이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기전자, 석유화학의 경우 전기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철강 및 비철금속, 기계류, 섬유류 산업은 크게 악화되었음

○ 산업별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섬유류, 기계류, 철강 및 비철금속, 자동차, 플랜트·해외건설 등 대다수의 산업에서 대폭 하락하며 채산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전자의 경우 소폭 상승

○ 산업별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기계류, 철강 및 비철금속, 섬유류 등에서 가파른 감소세를 나타내었고 자동차, 석유화학, 플랜트·해외건설 등에서도 하락하였으며, 전기전자의 경우 보합세를 보임

□ 수출지역별 업황 평가지수는 중남미, 중국의 경우 상승하였으나 기준치(100)를 하회하였으며,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세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유로존, 동남아, 아프리카의 경우 대폭 하락하였음

- 수출지역별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최근 유로화 가치가 급락함에 따라 유로존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였으며, 일본,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미국, 중국 순으로 높은 하락폭을 보이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악화되었음
- 수출지역별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아프리카의 경우 대폭 상승하였으나, 중남미, 일본, 유로존은 대폭 하락하였으며, 중국, 미국, 동남아에서도 하락세를 나타냄

<2014년 4분기, 2015년 1분기 수출업황, 수출채산성, 수출물량 평가지수>

구 분		수출업황 평가지수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수출물량 평가지수	
		2014년 4분기	2015년 1분기	2014년 4분기	2015년 1분기	2014년 4분기	2015년 1분기
규 모	대 기 업	98	94	100	95	100	93
	중 소 기 업	94	89	97	88	95	88
산 업	석 유 화 학	89	91	90	89	93	88
	철강 및 비철금속	101	82	98	83	98	82
	전 기 전 자	91	96	96	97	93	93
	기 계 류	101	87	101	85	106	89
	자 동 차	99	90	104	90	98	90
	선 박	96	86	100	92	106	97
	섬 유 류	98	84	103	86	103	90
	플랜트·해외건설	95	88	100	89	92	89
	미 국 (북 미)	99	94	102	94	102	98
수 출 지 역	중 국	92	94	95	93	94	88
	일 본	87	83	92	77	94	74
	유 로 존	94	80	101	84	101	84
	동 남 아	103	90	98	90	92	91
	중 남 미	86	94	93	83	100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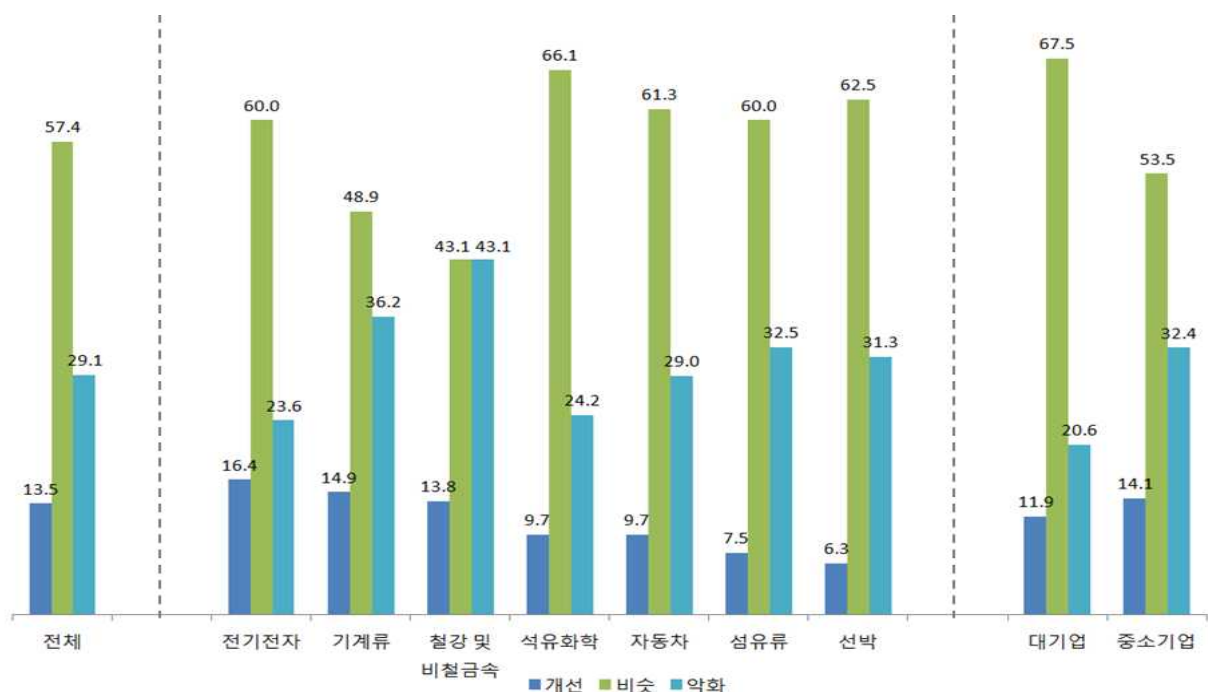
2. 수출업황 개선 및 악화 원인

□ 1분기 중 수출업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기업 중 13.5%이며,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29.1%임

- 전기(개선 18.3%, 악화 24.9%)에 비해 수출업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의 수는 감소하고,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의 수는 증가함
 - 나머지 57.4%는 수출업황이 '14년 4분기와 비슷하다고 답하였으며, 전기(56.7%)에 비해 그 비중이 증가함
-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업황이 악화된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대기업의 경우에는 68%의 기업이 전기와 업황이 비슷하다고 평가함
- 산업별로 보면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철강 및 비철금속, 기계류, 섬유류 산업에서 업황이 악화된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은 업황이 악화된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2015년 1분기 수출기업 업황 개선 및 악화 분포>

(총 기업 수 453, 단위 %)



□ 수출업황이 악화된 기업들은 업황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수출 대상국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요 감소(64.4%)와 원화환율 변동(31.1%)을 들고 있음(복수응답)

○ 이는 중국, 유로지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둔화가 수출기업 업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음을 보이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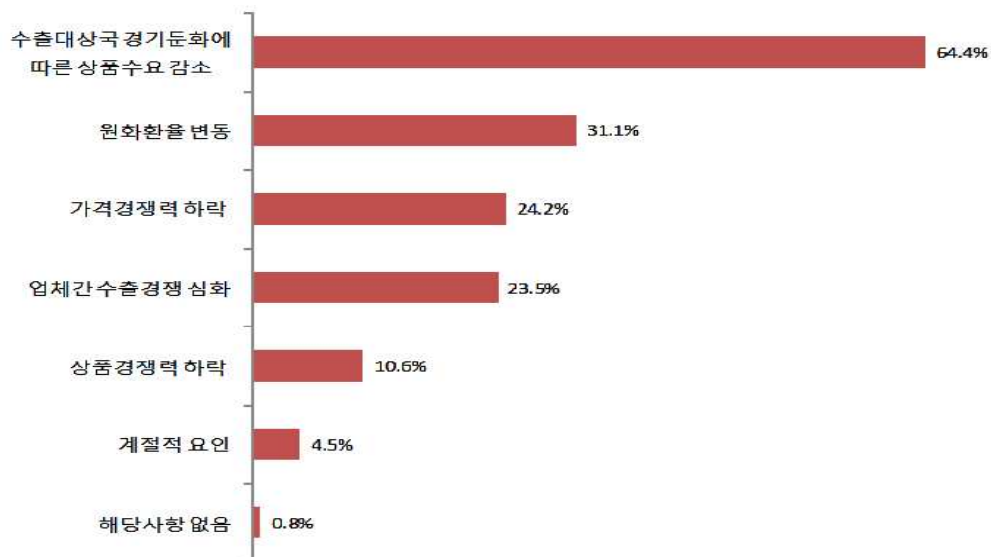
- 최근 경기둔화세가 심화되고 있는 중국, 유로지역으로 주로 수출하는 기업 중 각각 70%, 71%의 기업이 업황 악화의 원인으로 수출대상국의 경기둔화를 들고 있는 상황임

- 반면, 일본과 중남미 지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원화환율의 경우 최근 상승하여 수출기업에게 긍정적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으나, 환율의 변동성 확대가 기업의 경영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임을 나타낸 것임

<2015년 1분기 수출업황 악화 요인>

(업황 악화 기업 수 132)



○ 녹색(100%), 섬유류(76.9%), 철강 및 비철금속(68.0%), 기계류(61.8%), 전기전자(61.5%) 등 대부분의 경우, 수출대상국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요 감소를 업황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답함

- 선박 산업의 경우에는 장기계약에 따른 환변동 리스크가 높아 50%대의 업체가 원화환율 변동을 업황 악화 요인으로 답함
- 기계류 업체의 경우에는 환율변동에 대한 대응이 미숙한 중소기업이 많아 원화환율 변동이 업황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함
- 플랜트·해외건설 산업은 최근 엔화 및 유로화 약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이 업황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함

<기업규모, 산업, 수출지역별 2015년 1분기 수출업황 악화 요인>
(복수 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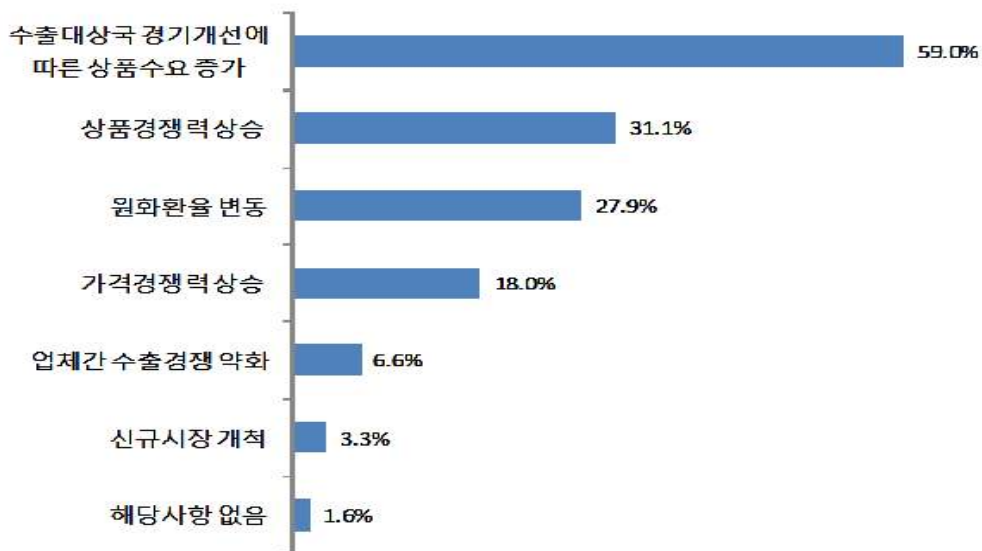
구분	상품 경쟁력 하락	가격 경쟁력 하락	수출 대상국 경기악화	업체 간 수출경쟁 심화	원화 환율 변동	기타
기업 규모						
대기업	7.7	30.8	53.8	34.6	26.9	7.7
중소기업	11.3	22.6	67.0	20.8	32.1	4.7
산업						
석유화학	20.0	46.7	53.3	0.0	20.0	6.7
철강 및 비철금속	4.0	32.0	68.0	40.0	28.0	4.0
전기전자	7.7	15.4	61.5	26.9	26.9	3.8
기계류	14.7	14.7	61.8	23.5	52.9	2.9
자동차	11.1	22.2	55.6	22.2	38.9	5.6
선박	20.0	40.0	50.0	30.0	50.0	0.0
섬유류	0.0	23.1	76.9	15.4	15.4	15.4
플랜트·해외건설	8.3	33.3	58.3	16.7	33.3	0.0
수출 지역						
미국 (북미)	12.9	32.3	61.3	25.8	25.8	3.2
중국	11.1	18.5	70.4	18.5	18.5	3.7
일본	20.0	20.0	45.0	15.0	45.0	10.0
유로존	4.8	28.6	71.4	23.8	42.9	9.5
동남아	6.3	18.8	75.0	18.8	31.3	6.3
중남미	0.0	66.7	33.3	33.3	0.0	0.0

- ☐ 수출업황이 개선된 기업의 경우 개선 요인으로서는 수출대상국의 경기개선에 따른 상품수요 증가(59.0%)와 상품경쟁력 상승(31.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복수응답)

- 수출업황 개선 기업 중 수출대상국 경기회복을 개선 요인으로 답한 기업의 경우 주요 수출지역이 동남아, 미국, 일본 등으로 나타나 이 지역의 경기회복세가 수출기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됨
 - 수출업황이 악화된 기업도 수출대상국의 경기부진을 악화 원인으로 들고 있어, 수출기업의 주요 수출대상국 차이가 업황의 차이를 발생시킨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수출업황 개선 요인으로 상품경쟁력 상승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원화환율 변동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국내 기업들이 원화가치 하락 등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 보다는 상품경쟁력에 더 의존하는 등 선진화되고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2015년 1분기 수출업황 개선 요인>

(업황 개선 기업 수 61)



- 산업별로는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가격경쟁력 상승(50.0%)을 주요 개선 요인으로 꼽고 있으며, 선박(50.0%) 산업에서는 상품경쟁력 상승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자동차,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에는 원화환율 상승이 다른 산업에 비해 업황 개선에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기업규모, 산업, 수출지역별 2015년 1분기 수출업황 개선 요인>

(복수 응답, 단위 %)

구	분	상품 경쟁력	가격 경쟁력	수출 대상국	업 체 간	원 화 환 율	기 타
		상 승	상 승	경 기 개 선	수출 경쟁 약화	변 동	
규 모	대 기 업	33.3	20.0	40.0	13.3	26.7	6.7
	중 소 기 업	30.4	17.4	65.2	4.3	28.3	4.3
산 업	석 유 화 학	33.3	50.0	33.3	0.0	16.7	16.7
	철강 및 비철금속	25.0	12.5	75.0	0.0	25.0	12.5
	전 기 전 자	27.8	16.7	55.6	5.6	44.4	5.6
	기 계 류	35.7	14.3	64.3	7.1	14.3	0.0
	자 동 차	16.7	16.7	50.0	0.0	50.0	0.0
	선 박	50.0	0.0	100.0	0.0	0.0	0.0
	섬 유 류	33.3	33.3	66.7	0.0	33.3	0.0
	플랜트·해외건설	25.0	25.0	50.0	50.0	25.0	0.0
수 출 지 역	미 국 (북 미)	35.0	10.0	65.0	0.0	30.0	10.0
	중 국	30.0	25.0	50.0	10.0	25.0	5.0
	일 본	20.0	20.0	60.0	20.0	20.0	0.0
	유 로 존	50.0	50.0	0.0	0.0	50.0	0.0
	동 남 아	16.7	16.7	100.0	0.0	16.7	0.0
	중 남 미	66.7	0.0	33.3	0.0	66.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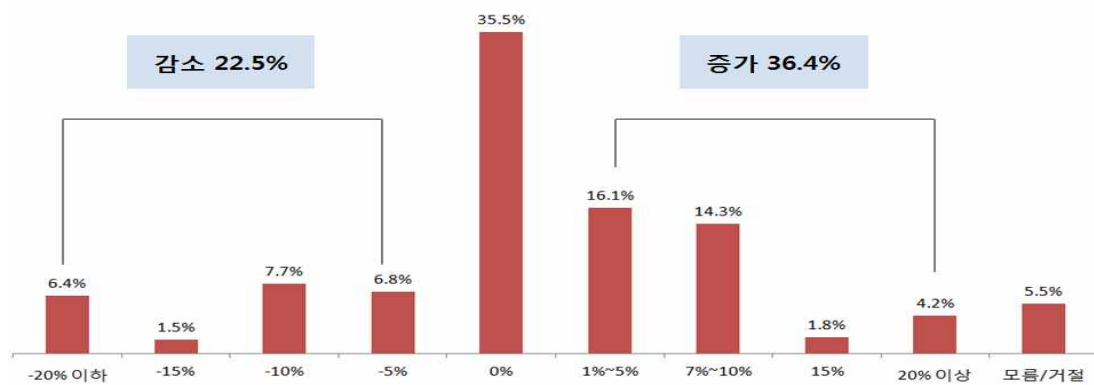
II. 수출기업 실적 전망

□ 수출기업들은 2분기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이 1.25%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분기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기업 중 36.4%,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2.5%임
- 수출증가율의 분포는 0% 수준이 3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1~5%를 전망한 기업이 16.1%, 7~10% 전망한 기업이 14.3%를 차지함

<전년동기대비 2015년 2분기 예상 수출액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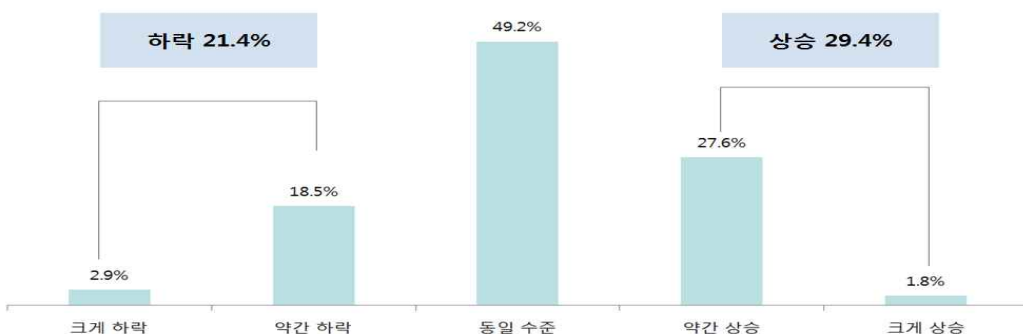
(총 기업 수 453)



- 2분기 수출증가율이 1분기 수출증가율보다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기업 중 29.4%, 동일수준 유지를 예상한 기업은 49.2%,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1.4%임

<전년동기대비 2015년 1분기, 2분기 수출증가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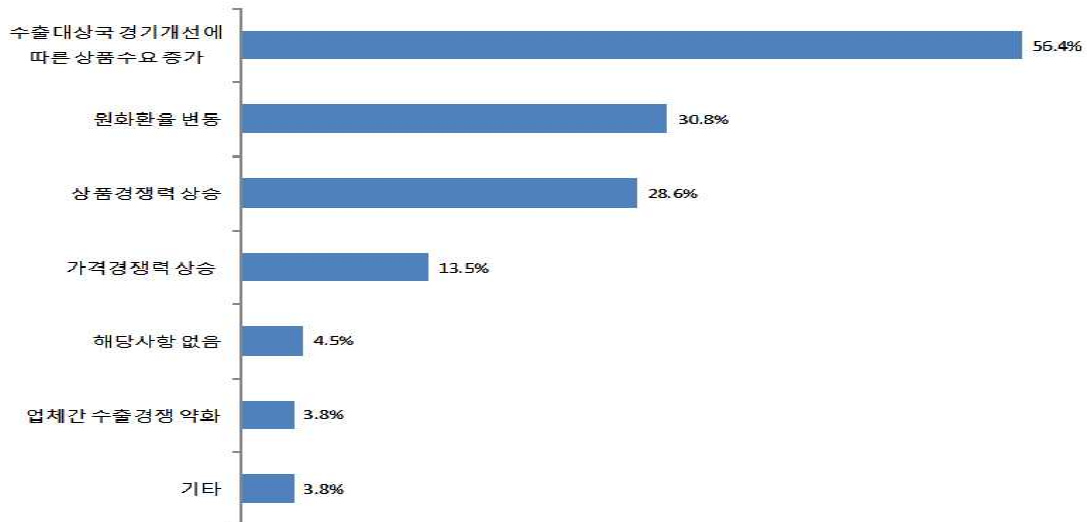
(총 기업 수 453)



- 수출증가율 상승 전망 이유로는 수출대상국의 경기개선에 따른 상품수요 증가(56.4%)와 원화환율 변동(30.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2015년 2분기 수출증가율 상승 전망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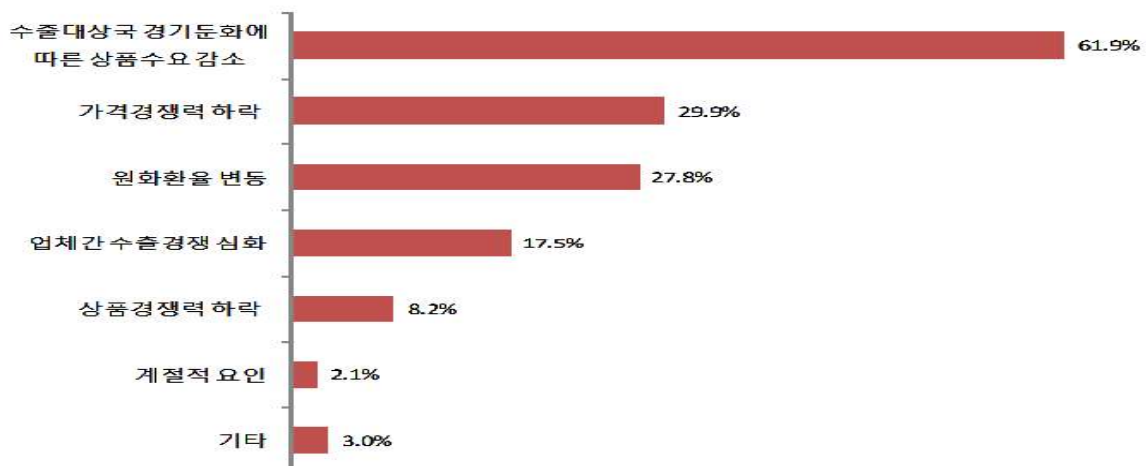
(상승 전망 기업 수 133)



- 한편, 수출증가율 하락 전망 이유로는 수출대상국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요 감소(61.9%)와 가격경쟁력 하락(29.9%)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2015년 2분기 수출증가율 하락 전망 이유>

(하락 전망 기업 수 97)



- 수출증가율 상승을 전망한 기업과 하락을 전망한 기업 모두 수출대상국 경기상황을 전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회복력 차이가 기업간 차이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됨

□ 산업별 2분기 수출증가율은 해운(6.5%), 석유류(4.2%), 플랜트·해외건설(1.7%)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석유화학, 기계류,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의 경우에는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산업별 전년동기대비 2015년 2분기 예상 수출액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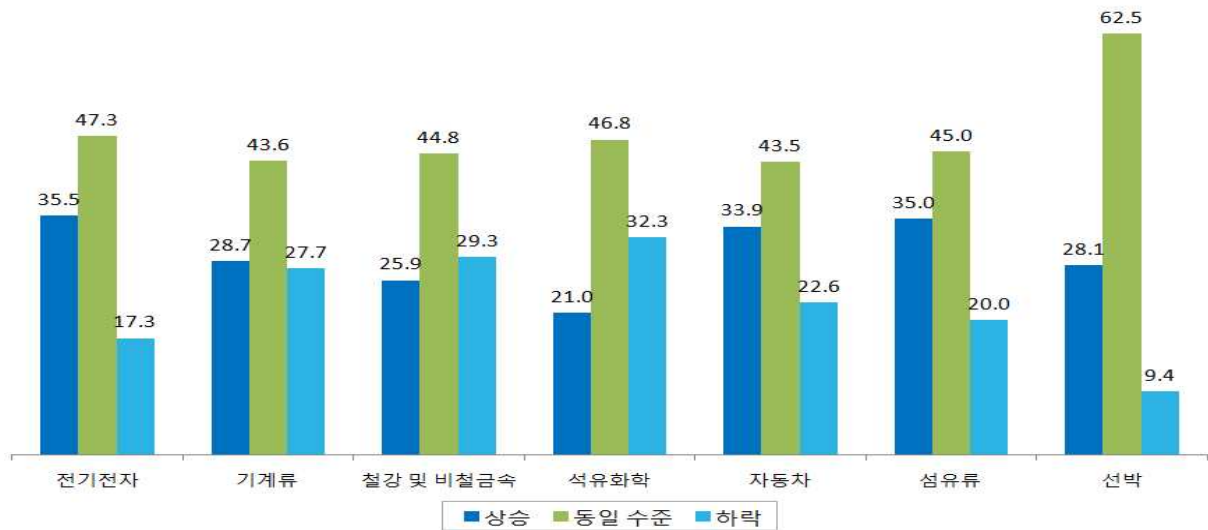
구 분	-20% 이하	-15%	-10%	-5%	0%	1% ~5%	7% ~10%	15%	20% 이상	평균
전 기 전 자	3.6	0.0	6.4	5.5	39.1	17.3	15.5	2.7	4.5	1.01
기 계 류	8.5	1.1	13.8	8.5	24.5	8.5	21.3	4.3	5.3	-0.96
철강 및 비철금속	12.1	1.7	10.3	8.6	29.3	13.8	12.1	1.7	6.9	-0.01
석 유 화 학	8.1	1.6	8.1	11.3	45.2	6.5	8.1	1.6	3.2	-3.40
자 동 차	3.2	1.6	6.5	8.1	33.9	22.6	17.7	3.2	1.6	1.17
섬 유 류	0.0	7.5	5.0	5.0	40.0	25.0	15.0	0.0	0.0	4.25
플랜트·해외건설	11.1	0.0	8.3	0.0	33.3	19.4	13.9	0.0	5.6	1.69
녹 색	3.8	0.0	7.7	11.5	30.8	15.4	11.5	0.0	7.7	0.94
선 박	6.3	0.0	3.1	9.4	40.6	25.0	9.4	0.0	0.0	0.28
문 화 컨 텐 츠	0.0	0.0	0.0	0.0	50.0	37.5	12.5	0.0	0.0	4.43
해 운	0.0	0.0	0.0	0.0	0.0	50.0	50.0	0.0	0.0	6.50

○ 1분기 수출실적과 비교할 경우, 석유화학,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전기보다 수출증가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 특히, 전기전자, 석유류, 자동차, 선박 산업의 경우 수출증가율 상승을 전망하는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석유화학,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에서 수출증가율이 전기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원인으로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산업별 전년동기대비 2015년 1분기, 2분기 수출증가율 비교>

(단위 %)



□ 수출지역별 2분기 수출증가율 전망은 미국(4.0%), 일본(3.4%), 동남아(1.7%), 중국(1.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중동(-1.0%), 아프리카(-1.2%), 유로존(-0.7%)에 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이는 최근 유로존의 경기둔화세와 유가하락의 영향에 따른 중동지역 국가들의 경기가 악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수출지역별 전년동기대비 2015년 2분기 예상 수출액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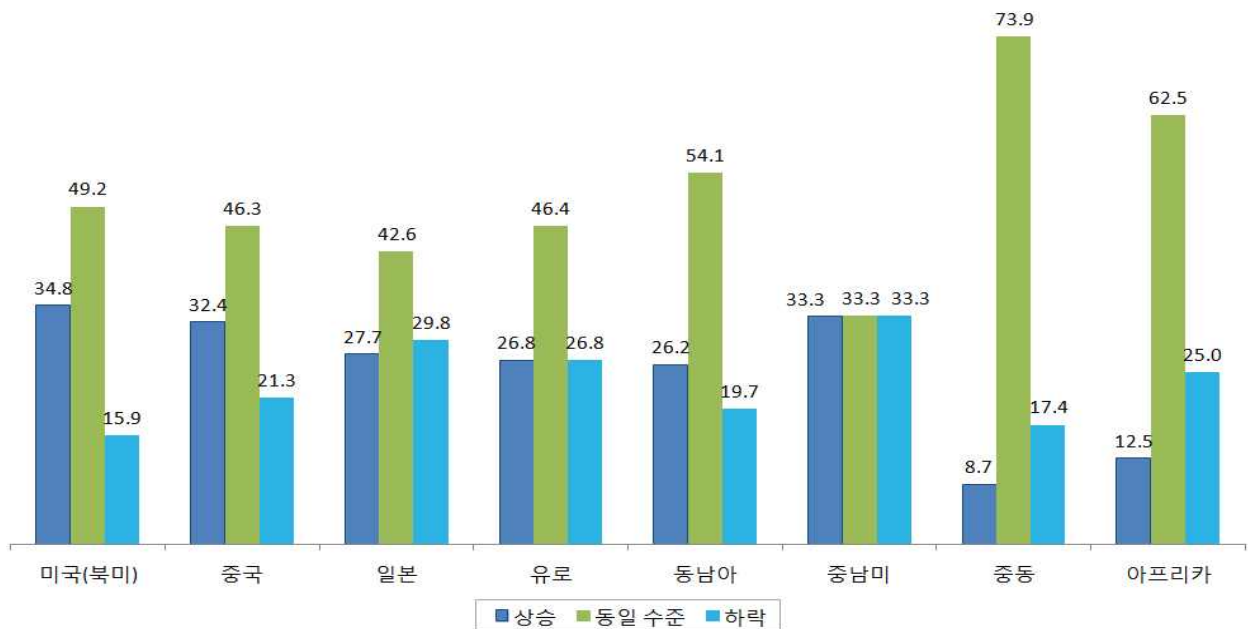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 이하	-15%	-10%	-5%	0%	1% ~5%	7% ~10%	15%	20% 이상	평균
미국(북미)	3.0	1.5	6.8	4.5	37.1	19.7	12.9	2.3	6.8	4.03
중 국	6.5	0.9	8.3	6.5	29.6	20.4	19.4	0.9	0.9	1.65
일 본	10.6	6.4	10.6	4.3	27.7	14.9	19.1	4.3	0.0	3.39
유 로 존	8.9	1.8	8.9	12.5	39.3	16.1	7.1	0.0	1.8	-0.71
동 남 아	3.3	0.0	6.6	8.2	39.3	8.2	18.0	1.6	8.2	1.72
중 남 미	11.1	0.0	0.0	0.0	55.6	0.0	22.2	0.0	0.0	1.25
중 동	4.3	0.0	8.7	13.0	39.1	17.4	4.3	0.0	8.7	-1.04
아프리카	50.0	0.0	0.0	0.0	37.5	0.0	0.0	0.0	0.0	-1.17

- 1분기 수출증가율과 비교할 경우, 미국, 중국, 동남아 지역에 수출하는 기업 중에서는 2분기 수출증가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본,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1분기보다 수출증가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수출지역별 전년동기대비 2015년 1분기, 2분기 수출증가율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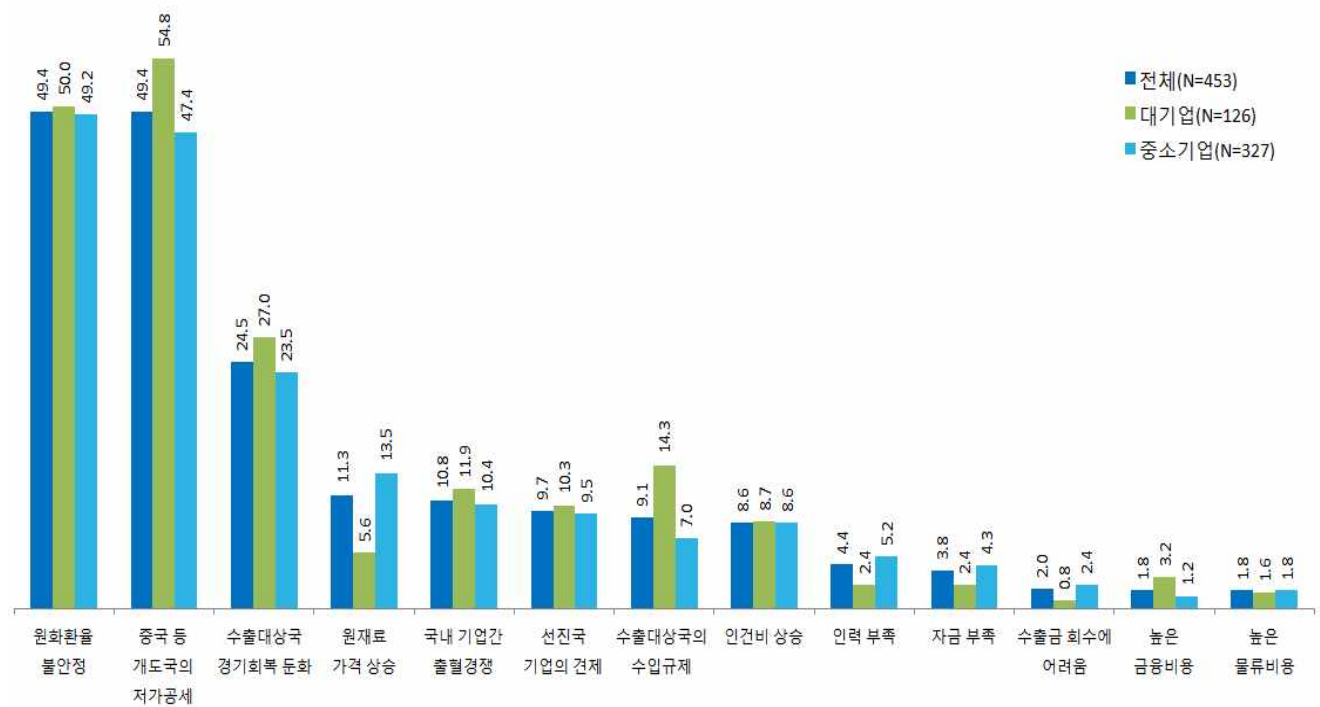


Ⅲ. 수출기업 애로사항

- 1분기 중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원화환율 불안정(49.4%),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49.4%) 및 수출대상국 경기회복 둔화(24.5%)가 꼽히고 있음
- 원화환율 불안정 및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은 기업의 비중은 전기(각각 61.6%, 61.8%)보다 감소
 - 환율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전기대비 상승하며 수출단가가 하락함에 따라 수출기업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한 우려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임
- 수출대상국의 수입규제(7.7% → 9.1%) 및 선진국 기업의 견제(7.5% → 9.7%) 등에 따른 애로사항은 전기대비 다소 증가함

<2015년 1분기 수출기업 애로사항 비율>

(단위 %)



- 석유화학, 섬유류, 선박 등 대부분의 산업의 경우, 위 세 가지 애로사항 외에도 원재료 가격 상승, 국내 기업간 출혈경쟁, 선진국 기업의 견제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음

<산업별 2015년 1분기 수출기업 애로사항 비율>

(단위 %)

구	분	석유화학	철강 및 비철금속	전기전자	기 계 류	자 동 차	선 박	섬 유 류	플랜트· 해외건설
원 화 환 율 불 안 정		46.8	46.6	40.9	63.8	67.7	46.9	47.5	38.9
중국 등 개도국의 자가공세		43.5	60.3	58.2	41.5	41.9	53.1	47.5	58.3
수출대상국 경기회복 둔화		24.2	31.0	21.8	29.8	14.5	25.0	30.0	22.2
원 재 료 가 격 상 승		11.3	8.6	15.5	9.6	6.5	12.5	15.0	8.3
국내기업간 출혈경쟁		12.9	6.9	8.2	10.6	3.2	15.6	10.0	19.4
선진국 기업의 견제		6.5	13.8	12.7	8.5	8.1	9.4	10.0	13.9
수출대상국의 수입규제		11.3	6.9	7.3	3.2	12.9	3.1	10.0	11.1
인 건 비 상 승		3.2	6.9	10.0	5.3	14.5	12.5	12.5	11.1
인 력 부 족		8.1	0.0	1.8	4.3	3.2	6.3	2.5	2.8
자 금 부 족		4.8	1.7	5.5	2.1	3.2	3.1	0.0	2.8
수출금 회수에 어려움		1.6	0.0	1.8	2.1	1.6	3.1	2.5	2.8
높 은 금 융 비 용		0.0	3.4	1.8	0.0	3.2	3.1	0.0	2.8
높 은 물 류 비 용		0.0	0.0	2.7	2.1	4.8	0.0	2.5	2.8

〈부록〉 수출기업 업황 설문조사 및 지수 개요

1. 설문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기업이 수출현장에서 느끼는 종합적인 수출여건을 기업별, 업종별로 조사하여, 기업경영 계획과 정부의 무역 지원 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 기간 및 방법

- 조사 대상 기간
 - 업황평가 : 조사 해당 분기
 - 실적전망 : 조사 다음 분기
- 조사 실시 기간 : 매 분기 마지막 달 10일 전후 일주일
- 모집단 및 표본
 - 모집단 : 12개 주요산업 중 수출액 5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 표본 크기 : 대·중소기업 포함 400~500개 업체
- 조사 방법 : 전화 응답

2. 지수 산출 방식 및 개요

☐ 지수 산출 방식

- 기업들이 해당 분기 조사 항목에 대해 매우 개선(증가·상승), 개선(증가·상승), 비슷, 악화(감소·하락), 매우 악화(감소·하락) 등 5단계 중 자신의 평가를 선택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황 개선 기업 수가 악화 기업 수보다 많으면 100보다 높게, 그 반대의 경우에는 100보다 낮게 나타내도록 지수화 함

○ 지수 산출 방식 :

$$\frac{(\text{매우개선} \times 1.0 + \text{약간개선} \times 0.5 + 0 \times \text{동일} - \text{약간악화} \times 0.5 - \text{매우악화} \times 1.0)}{\text{전체 응답자수}} \times 100 + 100$$

□ 지수별 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수출업황평가지수		수출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수출채산성평가지수	수출기업의 채산성에 대한 평가	
	수출단가평가지수	수출단가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평가	
	생산원가평가지수	생산원가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평가	
수출물량평가지수		수출물량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평가	
수출계약평가지수		수출계약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평가	
자금사정평가지수		자금사정의 개선 또는 악화에 대한 평가	